

#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 유형별 특성과 유형 결정요인\*

A Typology of Leisure Time with Whom of the Married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essor Kim, Oi-Sook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Leisure time may be used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alone, with family, or with other peopl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types of leisure time with whom and determinants of the types. The data source for this research was the '2009 Time Us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The item 'people involved in each activity' was surveyed for the first time by KNSO in 2009. 3,712 diaries completed by married adults aged 20 to 59 years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cluster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Leisure time with whom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based on three categories of leisure time (alone, with family, with others): "individual-oriented leisure," "family-oriented leisure," "others-oriented leisure," and "vulnerable leisure." These types were different by various socio-economic variables. And gender, work time, the presence of preschool children, and household type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determinants for the types.

Key Words : 여가시간(leisure time), 공유대상(with whom), 유형(typology),  
기혼자(the married)

\* 이 논문은 2010년도 후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주저자, 교신저자: 김외숙(E-mail: kimos@knou.ac.kr)

## I. 서론

시간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하루 24시간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시간을 특정 활동에 배분하면 다른 활동에 배분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받게 되는 제로섬(zero-sum)의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하루의 시간을 어떠한 활동에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뿐 아니라 한 사회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이기영·김외숙, 2009).

따라서 1960년대 이후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시간사용을 연구해 오고 있으며, 가정학의 경우 미국 가정관리학자들에 의해 시간사용이 연구되기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 시간사용연구가 중요한 연구영역의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 가정관리학에서의 시간사용 연구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는 누가 어떠한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간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있었고 따라서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영역별로 시간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시간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최근에는 활동영역별 시간량을 기술통계로 분석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활동영역별 시간사용량을 근거로 시간배분을 유형화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영역에 대한 시간배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한지수·이연숙, 2005; 차승은, 2008; 채화영·김주희·이기영, 2011; 김외숙 외, 2012).

한편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여가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여가와 관련되어 중요하게 연구된 주제는 여가시간, 여가활동, 여가비용, 여가계약 또는 장애, 여가동기, 여가만족도 등으로 주로 개인의 여가행동이 관심을

받아왔다. 그런데 여가생활에서의 만족감은 다른 어떤 활동에 있어서보다 함께 하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집단효과가 크다고 볼 때 여가생활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김외숙·한경미, 2010). 따라서 개인이 자유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어떤 활동에 얼마나 많이 배분하는지, 활동영역별 시간배분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서 나아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나 결과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여가활동별 시간사용을 파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은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부여가(Orthner, 1975; 안동선, 1982; 이기영·김외숙·구혜령, 1995; Kingston & Nock, 1987; shaw, 1999; Gatenby, 2001; Roeters & Treas, 2010), 가족여가(이승미, 1997; 윤소영·정유희, 2003; 천혜정, 2004; 이연숙 외, 2012) 및 부모자녀시간(이승미·이기영, 1998; Bryant & Zick, 1996; Yeung, et al., 2001; Knowles, 2004; Barnet-Verzat, Pailhe & Solaz, 2007; Roeters & Treas, 2010), 가족시간(이승미, 1997; 이기영 외, 2011; 조희금 외, 2011, 김외숙 외, 2012; Daly, 1996; Folbre, Finnoff, & Fuligni, 2005; Morrill & Pablonia, 2012)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과 관련된 주요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부부, 부모자녀, 가족전체 등 여가시간을 함께 하는 대상에 따라 분석된 것으로 한 개인이 전체 여가시간 중 얼마를 혼자 또는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함께 한 사람’을 조사항목에 최초로 포함한 2009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여가시간 공유대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함께 한 사람’에

따른 여가시간을 기준으로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이 인구사회학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밝히며 유형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여가생활의 경우 함께 하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활동영역에서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화는 여가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시간배분의 유형

시간배분에 대한 연구 중 단지 활동영역별 시간사용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간사용의 패턴을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시간사용유형에 따른 일상생활을 파악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간사용을 유형화한 연구로서 장근영과 김기현(2009)의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있다. 이들은 12~18세 청소년들의 시간사용을 분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을 평균지향족(40.1%), 학원·학교족(26.7%), 개인공부족(9.5%), 가사노동족(6.0%), 취미활동족(5.5%), 종교활동족(3.2%)의 6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라이프스타일별로 학업적응,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2008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라는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배분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하여 생활패턴에 따른 적응과 만족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한 생활환경과 부족하거나 필요한 생활요소를 탐색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점

에 의의가 있다.

311셋(set)의 부부 시간일지를 사용하여 성별 및 취업여부별로 나누어 시간사용을 유형화한 한지수와 이연숙의 연구(2005)는 부부의 개인유지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4가지 시간변수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 부부의 시간사용유형을 개인유지중심형, 수입노동중심형, 가사노동중심형, 여가중시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의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부부를 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점에서 개인의 시간사용에 배우자의 시간사용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점에 연구의의가 있지만, 개별적인 자료의 수집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어떠한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시간사용을 유형화한 데 비하여 이승미와 이기영(1998)의 연구에서는 활동을 함께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가 식사, 소극적 여가활동, 적극적 여가활동이라는 세 영역의 활동에 함께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부모자녀의 시간사용 공유양상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공유 취약집단(78.8%), 소극적 여가집단(12.8%), 적극적 여가집단(8.4%)이 추출되었으며, 각 유형은 서로 구분되는 방식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는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공유시간을 최초로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개별 연구자의 소규모 자료수집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연구자료의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이다. 통계청에서는 1999년부터 5년 주기로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2000년대 후반 이후 이 자료를 이용한 시간배분의 유형화 연구(차승은, 2008; 채화영 외, 2011; 김외숙 외, 2012)가 나타나고 있다.

차승은(2008)은 200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 35~59세 중년기 기혼취업자를 중심으로 유급 노동시간, 가족관련활동시간, 여가시간을 축으로 시간배분을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 취업자들의 시간배분유형이 일여가형(33.0%), 일중심형(35.2%), 가족중심형(14.6%) 그리고 여가중심형(17.36%)의 네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형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함께 이들 유형을 결정하는 변수가 밝혀졌으며, 유형별 시간정서의 차이도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배분의 실태를 단순히 활동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로서 이후 한국에서 이루어진 시간배분 유형화 연구의 모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채화영과 그의 동료들(2011)은 2009년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 중 5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영역, 가정생활영역, 여가활동영역의 시간을 기준으로 남녀를 구별하여 세분화된 시간배분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남성은 생계형(22.0%), 여가형(31.0%), 균형형(25.0%), 가정적여가형(23.0%)으로, 여성은 생계형(20.0%), 여가형(38.0%), 살림형(22.0%), 소극형(20.0%)으로 유형화되고, 남녀 모두 여가형에 속하는 분포가 가장 높은 점이 공통적임을 밝혔다. 이 연구는 차승은(2008)의 연구대상과 다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남녀를 구별하여 시간배분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 2. 여가시간 공유대상

현대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여가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여가와 관련되어 중요하게 연구된 주제는 여가시간, 여가활동, 여가비용, 여가계약 또는 장애, 여가동기, 여가만족도

등으로 주로 개인의 여가행동이 관심을 받아왔다. 그런데 여가생활에서의 만족감은 다른 어떤 활동에 있어서보다 함께 하는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집단효과가 크다고 볼 때 여가생활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김외숙·한경미, 2010).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 개별 가족구성원의 여가연구에서 나아가 가족 및 가족구성원 간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김외숙 외, 2012), 가족여가는 함께 하는 가족에 따라 가족전체, 부부, 부모자녀 등 다양한 구성원 조합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이승미, 1997; 천혜정, 2004, 이연숙 외, 2012).

가족이 부부의 형성에 기초를 둔다는 점에서 가족여가의 가장 핵심적인 유형은 부부여가로서 부부여가시간의 실태 및 관련변수 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 왔다. 부부공유 여가시간은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안동선, 1982; 이기영 외, 1995; 한영선·윤소영, 2009; 손문금, 2010; Orthner, 1975; Kingston & Nock, 1987; Hill, 1998; Gatenby, 2001; Knowles, 2004)으로 보고되고 왔으며, 우리나라 부부는 적극적 여가활동보다는 가정 안에서 소극적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기영 외, 1995).

가족을 구성하는 부모와 자녀는 다양한 가정생활영역에서 공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은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나 여가기능, 그리고 사회화의 한 표현이 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가족의 결속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주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승미·이기영, 1998; 진미정·이윤주, 2010; Bryant & Zick, 1996; Sandberg & Hofferth, 2001; Yeung et al., 2001; Roeters & Treas, 2011).

이 외에 최근 핀란드에서는 아동이 방과 후 집에 혼자 있는 경우 부모의 감독 없이 TV시청, 컴

퓨터 게임, 인터넷 등의 미디어이용으로 우울, 학업성적 하락 등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점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동의 방과 후 시간 사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Pääkkönen (2008)은 1999~ 2000년의 핀란드 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0~18세 아동이 방과 후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을 혼자, 형제자매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의 혼자, 부모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의 혼자, 가족구성원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등으로 나누어 집 안에서 누구와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여가시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아동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을 밝힌 점에서 여가대상 연구와 관련이 깊다.

한편 시간사용의 유형화와 관련해 볼 때 여가시간 공유대상의 유형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차승은(2008), 채화영과 그의 동료들 (2011)의 연구들이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활동별 시간배분의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이고 김외숙과 그의 동료들 (2012)의 연구는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공유시간을 유형화한 연구이다. 이들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처음으로 “함께 한 사람”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의 가족공유시간 유형 및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식사, 가사노동, 여가의 세 가지 활동영역에 대해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토대로 가족시간을 유형화하여 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전반적공유형, 비공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여가시간 공유대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있으며, 유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 3.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

생활시간연구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의 하나가 시간사용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의 문제이다. 이는 하루 24시간을 다양한 활동에 배분하는 객관적인 시간배분과는 다른 차원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개인이 자신의 시간사용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로서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가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손문금(2004)은 시간부족감을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이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성란(2006)은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인지 정도로 개념화하였고, 최혜지(2007)는 필요한 시간의 양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의 정의는 모두 시간부족감을 개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모자라다는 느낌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과 달리 Anttila, Oinas와 Nätti(2009)는 시간부족감을 자신의 시간사용에 대해 “바쁘다(busy)” 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지각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서두르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시간압박(time pressu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Szollos(2009)는 시간압박이 의무적 활동을 수행해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지적 측면

1) 시간부족(time famine, time crunch)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용어는 시간빈곤(time poverty), 시간스트레스(time stress), 시간압착(time-squeeze), 시간압박(time pressure) 등 다양하며, 시간부족에는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존재하는데(Anttila, Oinas & Nätti, 2009) 시간부족의 주관적 측면을 나타내는 용어가 시간부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cognitive aspect)과 일상생활에서의 속도와 관련된 정서적 측면(affective aspect)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결국 시간의 제약과 속도감의 차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시간부족감 또는 시간압박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보다 실제 시간이 모자라다는 느낌과 “바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부족감은 인구집단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는데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는 기혼취업여성들이 특히 많이 지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손문금, 2004; 민동걸, 2005; 차성란, 2006; 최혜지, 2007; 차승은, 2008; 차승은, 2010; Peters & Raaijmakers, 1998; Looman & Mills, 2010). 그러나 시간부족감은 단순히 역할과다로 인해 경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기산업사회에 만연한 새로운 사회문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Looman & Mills, 2010; 차승은, 2011). 이는 2009년 통계청(2010)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시간이 모자라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시간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은 8.9%에 불과한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간부족감이 개인 및 가족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Robinson & Godbey, 1997; Strazdins, Clements & Kordra, 2006)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취업여성에서 나아가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한 대표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손문금(2004)은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시간부족인식 정도와 그 이유를 밝혔고, 차성란(2006)은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시간부족 및 피곤함 인지정도 와 중사상지위 및 유료 자녀양육서비스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최혜지(2007)는 성역할 관점에 근거하

여 성역할 태도가 기혼취업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차승은(2008)은 중년기의 기혼취업 남녀를 대상으로 일·가족·여가시간 배분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경험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들 연구 외에 시간압박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녀에 따라 지각하는 시간압박수준의 차이와 시간압박의 결정요인을 밝힌 차승은(2010)의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시간사용의 주관적 측면으로서 시간사용만족도(time satisfaction)는 시간의 특정 활동 영역에 대해 즐거움(enjoyable)을 느끼거나(Michelson, 2011), 자신이 사용한 생활시간 양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강인자·김혜연, 2005) 또는 자신이 사용한 시간에 비해 결과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반응(박명숙·백경임, 1996)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간사용만족도는 자신이 사용한 시간에 대한 만족 정도로 정의되고 있다(김외숙 외, 2010).

시간사용만족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시간사용의 영역을 다양하게 분류한 후 각 영역별 만족도를 조사하고 전체적인 시간사용만족도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주부를 대상으로 일상적 자녀돌보기, 자녀 학습, 가내 가사노동, 가외 가사노동, 가내 여가, 가외 여가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전체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박명숙과 백경임의 연구(1996)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생리적 시간, 학업시간, 가사시간, 교제 및 여가활동시간에 대한 5개의 만족도로 구분한 후 각각의 영역 활동을 다시 19개로 세분화하고 전체적인 생활시간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강인자와 김혜연의 연구(2005)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는 단일문항 척도를 이용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여 다양한 연구주제별로 시간사용만족도와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김외숙과 그의 동료들 (2010)은 시간사용의 유형을 비가족공유형, 가족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가족공유형으로 분류할 때 평일의 경우 가족여가우위형의 생활시간만족도가 비가족공유형보다 높은 점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시간사용과 관련된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는 시간사용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여가생활은 여가시간의 양이나 여가활동의 종류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대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가시간 공유대상의 유형을 분석한 후 유형별로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 [연구문제 2]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별 인구사회학적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에 따라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조사대상가구의 10세 이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10분 간

격으로 구성된 시간일지에 응답자가 자기기입방식으로 행동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방식이며 시간일지는 2일 동안 기입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혼자 중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이다. 분석대상 행동은 ‘주행동’으로 한정하였고, 농가는 제외하였다. 여가시간의 공유대상은 요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평일에 비해 일요일의 경우 여가시간이 많아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요일의 시간일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시간일지는 3,712부이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2009년 처음으로 조사된 ‘함께 한 사람’ 항목은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그 외 가족 및 친척, ⑤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대상에 따라 여가시간을 유형화하기 위해 ‘함께 한 사람’을 ① 혼자, ② 배우자,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 ③ 기타의 세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따라서 기혼자의 여가시간은 공유대상에 따라 ① 개인여가시간, ② 가족공유여가시간, ③ 기타공유여가시간으로 나누어진다.

#### 3. 분석방법

S<sup>+</s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도의 자료로 생성되어 있는 생활시간자료와 가구원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통합한 후 SPSS 17.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을 유형화하기 위해 개인여가시간, 가족공유여가시간, 기타공유여가시간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간의 차이검증 및 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표 1〉 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변수값
독립변수	성별	남성: 1(여성: 0)
	연령	연속변수(숫자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음)
	교육수준 (기준: 고졸)	중졸: 1(그 외: 0) 대졸: 1(그 외: 0) 대학원 이상: 1(그 외: 0)
	노동시간 (기준: 중)	없음: 1(그 외: 0) 하: 1(그 외: 0) 상: 1(그 외: 0)
	소득 (기준: 100-200만원 미만)	없음: 1(그 외: 0) 100만원 미만: 1(그 외: 0) 200-300만원 미만: 1(그 외: 0) 300만원 이상: 1(그 외: 0)
	배우자 유무	있음: 1(없음: 0)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1(없음: 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홀벌이: 0)
종속변수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 (기준: 개인중심형)	가족중심형: 1(그 외: 0) 타인중심형: 1(그 외: 0) 취약형: 1(그 외: 0)

을 실시하였다.

#### 4.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소득,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이다. 이 중 노동시간은 시간일지 조사 당시 지난 1주일 동안 주업 및 부업 시간을 합한 값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 0시간으로 처리하였다. 노동시간 집단은 일한 사람을 기준으로  $M \pm 0.5SD$  값을 기준으로 나눈 상, 중, 하의 세 집단과 노동시간이 0인 집단을 포함하여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소득은 개인 월평균소득을 의미한다.

시간부족감은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응답은 ‘아니오, 전혀’(1점), ‘아니오, 거의’(2점), ‘예, 가끔’(3점), ‘예, 항상’(4점)의 1-4점으로 분석하였다.

시간사용만족도는 ‘시간일지를 작성한 지난 이틀 동안 당신의 시간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점), ‘만족하지 않는다’(2점), ‘그저 그렇다’(3점), ‘만족한다’(4점), ‘매우 만족한다’(5점)의 1-5점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는 <표 1>과 같다.

####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빈도(%)

변수	구분	전체(3,712)		
			남(1,733)	여(1,979)
연령	20-29세	193( 5.2)	63( 3.6)	130( 6.6)
	30-39세	1,135(30.6)	482(27.8)	653(33.0)
	40-49세	1,451(39.1)	721(41.6)	730(36.9)
	50-59세	933(25.1)	467(26.9)	466(23.5)
교육수준	중졸	589(15.9)	211(12.2)	378(19.1)
	고졸	1,831(49.3)	809(46.7)	1,022(51.6)
	대졸	1,176(31.7)	630(36.4)	546(27.6)
	대학원	116( 3.1)	83( 4.8)	33( 1.7)
직업	관리자·전문가	592(15.9)	402(23.2)	190( 9.6)
	사무직	446(12.0)	262(15.1)	184( 9.3)
	서비스·판매직	725(19.5)	277(16.0)	448(22.6)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1,001(27.0)	699(40.3)	302(15.3)
	없음	948(25.5)	93( 5.4)	855(43.2)
노동시간	없음	947(25.5)	92( 5.3)	855(43.2)
	하	859(23.1)	403(23.3)	456(23.0)
	중	1,068(28.8)	673(38.8)	395(20.0)
	상	838(22.6)	565(32.6)	273(13.8)
소득 (단위: 만원)	없음	901(24.3)	24( 1.4)	877(44.3)
	100 미만	626(16.9)	147( 8.5)	479(24.2)
	100~200 미만	952(25.6)	532(30.7)	420(21.2)
	200~300 미만	657(17.7)	531(30.6)	126( 6.4)
	300 이상	576(15.5)	499(28.8)	77( 3.9)
배우자 유무	있음	3,549(95.6)	1,678(96.8)	1,871(94.5)
	없음(사별, 이혼)	163( 4.4)	55( 3.2)	108( 5.5)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858(23.1)	428(24.7)	430(21.7)
	없음	2,854(76.9)	1,305(75.3)	1,549(78.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30(49.3)	885(51.1)	945(47.8)
	홀벌이	1,882(50.7)	848(48.9)	1,034(52.2)

#### IV. 연구결과

##### 1.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

군집분석의 기준이 되는 개인여가시간, 가족공

유여가시간, 기타공유여가시간의 점수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개인여가시간은 평균 143분이며 중앙값은 110분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시간은 평균 128분이며, 중앙값은 110분으로 개인여가시

〈표 3〉 개인, 가족공유 및 기타공유 여가시간의 기초통계량

(단위: 분)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개인여가시간	3,712	143	129	110
가족공유여가시간	3,712	128	111	110
기타공유여가시간	3,712	62	105	10

간의 중앙값과 동일하였다. 기타공유여가시간의 경우 다수가 10분으로 응답하였는데 평균값은 62분이며, 표준편차는 105분으로 평균값을 상회하였다. 중앙값과 표준편차를 볼 때, 기타공유여가시간에서의 개인별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혼자 보내는 여가와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의 평균시간이 2시간대인데 비하여 기타공유여가시간은 1시간대를 나타내어 타인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은 전체의 18.6%를 차지한다.

이러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기혼성인의 여가시간 공유대상을 유형화하였다. 개인여가시간, 가족공유여가시간, 기타공유여가시간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4〉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점수

유형	빈도수	%	개인	가족공유	기타공유	점수부호
1	767	20.7	344	93	39	+ - -
2	1,579	42.5	87	72	31	- - -
3	917	24.7	91	278	21	- + -
4	449	12.1	101	73	296	- - +

먼저 유형 1을 <표 3>에서 제시된 평균점수와 비교해 보면, 가족공유여가시간이나 기타공유여

가시간보다 개인여가시간이 특별히 많은 분포를 보인다. 개인여가시간이 5시간 44분으로 다른 유형보다 많고, 개인여가시간, 가족공유여가시간, 기타공유여가시간의 평균점수와 비교할 때 “+ -”의 부호로 표시된다. 따라서 “개인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분석대상자 중 20.7%가 이 유형에 속한다.

유형 2는 개인여가시간, 가족공유여가시간, 기타공유여가시간 모두 전체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보이는 특징이 있고 점수부호로 표시하면 “- - -”로 나타낼 수 있어 “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는 전체 3,712명의 분석대상자 중 42.5%가 속하고 네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해당된다.

유형 3은 개인여가시간과 기타공유여가시간은 평균보다 적는데 비해 가족공유여가시간이 많은 특징이 있다. 점수부호로 “- + -”로 표시할 수 있어 “가족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시간은 평균 4시간 38분이고 전체 분석대상자 중 24.7%가 이 유형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유형 4를 보면 네 유형 중 기타공유여가시간이 특히 많고 개인여가시간과 가족공유여가시간은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보인다. 이를 부호로 나타내면 “- - +”이므로 “타인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는 12.1%로 4개의 유형 중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다. 이 유형의 기타공유여가시간은 평균 4시간 56분이다.

<표 5>는 4개의 유형이 공유대상 변수별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변수에 대해 군집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여가시간에서 개인중심형, 타인중심형, 취약형이 각각 다른 차이를 보이나 가족중심형의 경우 개인중심형과만 차이를 보였다. 가족공유여가시간에서는 타인중심형과 취약형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나머지 유형들은 서로 차이를 보

였고, 기타공유여가시간에서는 개인중심형과 취약형이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나머지 유형들 사이에서는 서로 차이를 보였다.

〈표 5〉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별 세 차원점수의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단위: 분)

변수	유형	평균	표준 편차	F
개인	개인중심형	344 a	99	2199.078***
	가족중심형	91 bc	75	
	타인중심형	101 b	81	
	취약형	87 c	64	
가족 공유	개인중심형	93 b	78	1955.401***
	가족중심형	278 a	83	
	타인중심형	73 c	66	
기타 공유	취약형	72 c	55	2795.777***
	개인중심형	39 b	58	
	가족중심형	21 c	43	
	타인중심형	296 a	107	
	취약형	31 b	44	

\*\*\*p<.001

## 2.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혼성인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을 파악한 후 각 유형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6〉을 보면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의 분석에 사용된 성별, 연령, 직업, 노동시간, 소득,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중심형과 취약형의 비율이 더 높은 반면 개인중심형과 타인중심형의 비율은 더 낮았다. 여성의 1/2(50.2%)이 취약형에 속하고 1/4(25.4%)은 가족중심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33.8%가 취약형,

29.4%가 개인중심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타인중심형에 속하는 분포가 높아지는 반면 취약형에 속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특성을 볼 수 있다. 개인중심형과 가족중심형의 경우 20대와 30대가 근소한 차이로 반대경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개인중심형과 타인중심형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중심형과 취약형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직업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보면 서비스·판매직과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집단은 취약형에 속하는 비중이 5할대로 가장 높았다. 관리자·전문가는 개인중심형(27.5%), 사무직과 무직자는 가족중심형에 속하는 비율이 28.7%, 30.2%로 각각 높고 서비스·판매직은 개인중심형(13.5%)과 가족중심형(18.1%), 사무직은 타인중심형(10.5%)에서 각각 낮은 분포를 보였다.

노동시간을 보면 취약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긴 집단은 50%대의 분포를 보이고 나머지 세 집단은 30%대의 분포를 보였다. 가족중심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없거나 노동시간이 짧은 집단이 30.2%, 27.0%로 각각 1/4이상씩 분포하고 있다.

소득의 경우 소득이 없는 집단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취약형(44.1%) > 가족중심형(28.2%) > 개인중심형(16.1%) > 타인중심형(11.7%) 순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있는 집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취약형은 그 분포가 낮아지고 반대로 개인중심형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비율이 더 높은 유형은 가족중심형(25.3%)이고, 나머지 세 유형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더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집단의 유형별 분포는 취약형(47.2%) > 개인중심형(27.0%) > 타인중심형(14.7%) > 가족중심형(11.0%)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취약형(54.0%)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개인중심형과 타인중심형에 속하는 비율은 더 낮았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여부를 보면 맞벌이의 경우 홀벌이에 비해 타인중심형(13.3%)과 취약형(46.2%)의 비율이 높았고 개인중심형과 가족중심형에서는 홀벌이가 맞벌이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3.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 결정요인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중심형을 기준집단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항로지스

〈표 6〉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빈도(%)

변수	구분	개인중심형	가족중심형	타인중심형	취약형	X <sup>2</sup>
성별	남성	509(29.4)	415(23.9)	223(12.9)	586(33.8)	179.808***
	여성	258(13.0)	502(25.4)	226(11.4)	993(50.2)	
연령	20-29세	28(14.5)	50(25.9)	15( 7.8)	100(51.8)	117.276***
	30-39세	163(14.4)	300(26.4)	104( 9.2)	568(50.0)	
	40-49세	309(21.3)	361(24.9)	183(12.6)	598(41.2)	
	50-59세	267(28.6)	306(22.1)	147(15.8)	313(33.5)	
교육수준	중졸	141(23.9)	123(20.9)	78(13.2)	247(41.9)	15.081
	고졸	358(19.6)	463(25.3)	202(11.0)	808(44.1)	
	대졸	243(20.7)	301(25.6)	151(12.8)	481(40.9)	
	대학원	25(21.6)	30(25.9)	18(15.5)	43(37.1)	
직업	관리자·전문가	163(27.5)	144(24.3)	80(13.5)	205(34.6)	111.149***
	사무직	92(20.6)	128(28.7)	47(10.5)	179(40.1)	
	서비스·판매직	98(13.5)	131(18.1)	88(12.1)	408(56.3)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231(23.1)	228(22.8)	119(11.9)	423(52.3)	
	없음	183(19.3)	286(30.2)	115(12.1)	364(38.4)	
노동시간	없음	183(19.3)	286(30.2)	115(12.1)	363(38.3)	124.310***
	하	197(22.9)	232(27.0)	109(12.7)	321(37.4)	
	중	275(25.7)	246(23.0)	133(12.5)	414(38.8)	
소득 (단위: 만원)	상	112(13.4)	153(18.3)	92(11.0)	481(57.4)	50.567***
	없음	145(16.1)	254(28.2)	105(11.7)	397(44.1)	
	100 미만	118(18.8)	152(24.3)	65(10.4)	291(46.5)	
	100~200 미만	201(21.1)	205(21.5)	125(11.4)	421(44.2)	
배우자 유무	200~300 미만	145(22.1)	160(24.4)	75(11.4)	277(42.2)	18.045***
	300 이상	158(27.4)	136(25.3)	79(13.7)	193(33.5)	
미취학자녀 유무	유	723(20.4)	899(25.3)	425(12.0)	1,502(42.3)	80.018***
	무	44(27.0)	18(11.0)	24(14.7)	77(47.2)	
맞벌이 여부	유	119(13.9)	213(24.8)	63( 7.3)	463(54.0)	34.223***
	무	648(22.7)	704(24.7)	386(13.5)	1,116(39.1)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2(18.1)	410(22.4)	243(13.3)	845(46.2)	34.223***
	홀벌이	435(23.1)	507(26.9)	206(10.9)	734(39.0)	

\*\*\*p<.001

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노동시간, 소득과 같은 개인관련 변수와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와 같은 가족관련 변수를 포함하였다.

먼저 개인중심형에 비해 가족중심형이 될 가능성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 노동시간, 배우자 유무가 유의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반면 교육수준, 소득,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중심형의 여가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았다. 노동시간이 중간인 집단보다 노동시간이 많은 집단과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가족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개인중심형에 비해 타인중심형이 될 확률은

〈표 7〉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 결정요인

변인	구분	가족중심형		타인중심형		취약형	
		b	s.e.	b	s.e.	b	s.e.
상수		1.041*	.475	-.597	.534	2.525***	.415
성별 (기준:여성)	남성	-1.036***	.148	-.928***	.171	-1.770***	.139
연령		-.036***	.008	.005	.010	-.033***	.008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085	.160	-.051	.185	.060	.146
	대졸	-.082	.121	.227	.146	-.106	.114
	대학원이상	.124	.296	.493	.339	.119	.285
노동시간 (기준:중)	없음	.231	.233	.253	.281	-.732***	.226
	하	.163	.137	.065	.164	-.168	.130
	상	.526***	.156	.619***	.179	1.228***	.139
소득 (기준:100-200만원 미만)	없음	-.205	.248	-.202	.228	.160	.234
	100만원 미만	.076	.180	-.328	.212	.053	.165
	200-300만원 미만	.224	.159	-.021	.190	.232	.147
	300만원 이상	.177	.168	-.033	.198	.055	.159
배우자 유무 (기준:없음)	있음	1.102***	.301	-.037	.284	.200	.226
미취학자녀 유무 (기준:없음)	있음	.155	.156	-.013	.201	.734***	.145
맞벌이 여부 (기준:홀벌이)	맞벌이	.056	.129	.524***	.159	.156	.120
N				3,712			
-2 log likelihood				7765.603			
Chi-Square				619.292***			
Degree of freedom				45			

주. 종속변수의 준거집단은 “개인중심형”임

\*p<.05, \*\*\*p<.001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노동시간, 맞벌이 여부로 나타난 반면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타인중심형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노동시간이 많은 집단이 중간인 집단보다 그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특성에서 보면 맞벌이의 경우가 홀벌이보다 타인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준거집단인 개인중심형과 취약형을 구분하는 주요 변수는 성별, 연령, 노동시간, 미취학자녀 유무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취약형일 확률이 높았다. 노동시간이 없는 집단보다 노동시간이 중간인 집단과 노동시간이 많은 집단이 취약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미취학의 어린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그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의 유형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한 성별과 연령, 노동시간과 같은 개인 관련 변수와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와 같은 가족관련 변수가 여가시간의 공유대상 유형의 결정요인으로도 중요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여가시간에 관한 성별 차이를 밝힌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보다 여가시간을 적게 갖는 점을 보고하여 왔고(유소이·최윤지, 2002; 이기영·이승미, 1994; 이기영 외, 2006; 윤소영·김현, 2007; 김외숙, 2008), 서구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여가시간에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거나 그 차이가 적어서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연구들(Nock & Kingston, 1989; Shelton, 1992; Bittman, 1998)이나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갖는다고 밝힌 연구결과(Bittman & Wajcman, 2000)도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여가시간이 더 적다는 연구결과들(Firestine & Shelton, 1994, Zuzanek & Smale, 1997)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적은 취약형에 여성이 속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족중심형이나 타인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여가시간의 양 자체보다는 관계지향적인 여성의 특성과 반(半)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여성이 더 높은 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도 다수의 선행연구(한경미·황덕순, 1990; 이기영 외, 1996; 김외숙, 2008)에서 기혼자의 여가시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는데 연령이 적은 기혼자의 경우 여가시간 자체가 적은 점에서 취약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고연령층에 비해 부부중심의 생활양식을 갖는 점에서 가족중심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간도 여가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져 있는데(Yeung et al., 2001; Kingston & Knock, 1987; Barnet-Verzat et al., 2007; 이연숙 외, 2012; 김외숙 외, 2012) 노동하지 않을 경우 여가시간이 많으므로 취약형이 될 가능성은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많을 경우 취약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여가시간의 양과 직결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노동시간이 많은 집단이 중간수준인 집단보다 개인중심형과 비교하여 가족중심형과 타인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여가대상의 선택에는 여가시간의 양 자체와는 다른 차원의 요인이 작용하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와 같은 가족관련 변수들이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의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개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조건들이 여가대상의 선택에 중요한 점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가시간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는(Bittman & Wajcman, 2000; Gatenby, 2004; Barnet-Verzat et al., 2007; 김외숙, 2008;

(표 8) 공유대상 유형별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구분	개인중심형	가족중심형	타인중심형	취약형	F
시간부족감	2.87(c)	2.99(bc)	3.02(b)	3.21(a)	36.446***
시간사용만족도	3.10(b)	3.15(b)	3.27(a)	3.12(b)	5.718***

\*\*\*p<.001

김외숙 외, 2012; 이연숙 외, 2012) 점에서 취약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의 여가시간 공유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족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맞벌이가 홀벌이에 비해 타인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점은 사회활동의 범위가 확대된 상황에서 여가시간의 대상으로 타인의 비중이 증가한 점에 기인하는 점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 4.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별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

기혼성인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1~4점 척도로 조사된 시간부족감은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부족감을 가장 높게 보고한 취약형(3.21)은 다른 세 유형들과 차이를 보였고, 타인중심형(3.02)은 가족중심형(2.99)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간부족감이 가장 낮은 개인중심형(2.87)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가족중심형은 취약형과는 차이를 보였지만 개인중심형과 타인중심형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5점으로 측정된 시간사용만족도도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사용만족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타인중심형(3.27)으로서 이 유형은 다른 세 유형들과 차이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유형들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부공유 여가시간은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안동선, 1982; 이기영 외, 1995; 한영선·윤소영, 2009; 손문금, 2010; Orthner, 1975; Kingston & Nock, 1987; Hill, 1998; Gatenby, 2001; Knowles, 2004), 우리나라 부부는 적극적 여가활동보다는 가정 안에서 소극적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점에서(이기영 외, 1995) 가족중심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취약형이나 개인중심형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타인중심형보다 낮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 기혼자의 일요일 시간일지를 분석하여 여가시간을 함께 하는 대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첫째, 기혼자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대상은 개인중심형, 가족중심형, 타인중심형, 취약형의 네 유형으로 구분된다. 개인중심형은 혼자 보내는 여가시간이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에 비해 많고, 가족중심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족공유여가시간이 많으며, 타인중심형은 타인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보다 많다. 취약형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대상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적은 특징이 있다.

네 유형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42.5%를 차지하는 취약형이고, 이 유형의 여가시간은 190분으로 이는 390~476분인 다른 유형들에 비해 39.9~48.7%에 불과하다. 여가시간이 가장 많은 개인중심형의 경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도 취약형에 비해 더 많다.

둘째,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은 성별, 연령, 직업, 노동시간, 소득,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다.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취약형이 더 많고, 개인중심형은 더 적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개인중심형과 타인중심형은 더 많아지고 취약형은 더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직업별로 볼 때 모든 집단이 취약형에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는데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그 비율이 특히 높고 관리자·전문가는 개인중심형, 사무직과 무직자는 가족중심형에 속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 노동시간이 많은 집단은 취약형에 속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으며, 노동시간이 적을수록 가족중심형의 비율이 높아진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개인중심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소득이 없는 집단을 제외하면 소득이 감소할수록 취약형의 비율은 증가한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그 비율이 더 높은 유형은 가족중심형이고,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 취약형의 비율이 특히 높으며, 맞벌이는 홀벌이보다 타인중심형과 취약형의 비율이 높고 홀벌이는 맞벌이에 비해 개인중심형과 가족중심형의 비율이 더 높다.

셋째, 개인중심형을 기준으로 다른 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면 가족중심형에 속할 가능성은 성별, 연령, 노동시간, 배우자 유무에 영향을 받는다.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중간인 집단보다 많은 집단이, 배우자가 있을 때 가족중심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타인중심형이 될 가능성은 성별, 노동시간, 맞벌이 여부에 영향을 받아 여성이고

노동시간이 많고 맞벌이를 할 때 타인중심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취약형의 경우 성별, 연령, 노동시간, 미취학자녀 유무에 영향을 받는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없는 집단보다 중간인 집단이, 노동시간이 중간인 집단보다 많은 집단이,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 취약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변수별로 볼 때 남성은 개인중심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은 그 외 유형들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령이 젊을수록 가족중심형이나 취약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간이 중간인 집단과 비교할 때 노동을 하지 않는 집단은 취약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노동시간이 많은 집단은 개인중심형 이외의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가 있을 때 가족중심형이,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 취약형이, 맞벌이일 때 타인중심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수준과 소득은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의 유형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에 따라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가 차이가 있다. 취약형이 시간부족감을 가장 많이 느끼고 개인중심형이 그 반대이며, 타인중심형이 다른 세 유형들보다 시간사용만족도가 높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혼자의 여가시간 공유대상의 유형 중 다른 유형들에 비해 여가시간이 39.9~48.7% 수준인 취약형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그 비율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인 여성, 20~39세, 서비스·판매직과 기능원·장치·단순노무직, 노동시간이 많은 집단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집단이 여가생활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취약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집단들은 직업노동 또는 가사노동을 위한 시간이 과다한 결과 공유대상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OECD국가 중에서도 장시간 노동 국가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감소를 위한 노동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정책이 필요한 동시에 가정내에서 여성의 가사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남성의 가사분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유형은 타인중심형이다. 일요일의 여가시간을 주로 타인과 보내는 타인중심형의 시간부족감은 취약형보다는 낮지만 개인중심형보다는 높은데 시간사용만족도는 다른 세 유형들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다. 이는 시간부족을 상당히 느끼지만 시간사용에는 가장 만족하는 유형이 타인중심형이라는 점에서 이 유형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여가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주목을 받아왔고 가족여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데 비하여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여가 동호회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점에서 가족 외의 타인과 함께 하는 여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여가시간의 공유대상 유형이 일요일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시간부족감과 시간사용만족도는 요일과 관계없이 조사된 자료가 사용된 점에서 앞으로 좀 더 정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중심형의 시간사용만족도가 타인중심형보다 낮고 개인중심형이나 취약형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과 관련해서도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대규모로 조사된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기혼자가 여가시간을 보내는 대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밝힌 여가시간 공유대상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여가활동별 참여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기혼자 외에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인구집단에 초점을 맞춘 여가시간 공유대상 연구와 함께 국가간 여가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여가시간 공유대상의 비교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여가시간 공유대상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는 시간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함께 한 사람’ 항목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에서 ‘함께 한 사람’ 항목을 개인, 배우자, 할아버지와 할머니, 형제와 자매, 미취학자녀, 직장동료, 이웃 등과 같이 구분하고 있는 등 다수 국가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이 항목을 세분하고 있다. 또한 여가시간 공유대상의 연구뿐만 아니라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전반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시간조사에 복지(Wellbeing)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 2010년의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나 활동별로 주관적 복지감(subjective wellbeing)을 조사한 2009년의 프랑스 통계청의 조사와 같이 다양한 사회심리적 항목을 추가할 것도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인자·김혜연(2005). 제주도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시간 사용 및 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4), 1-19.
- 2)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외숙(2008). 여가시간 결정요인의 성차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46, 267-284.
- 4) 김외숙·한경미(2010). 여가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5) 김외숙·이기영·이연숙·조희금·한영선·김하늬·김주희·윤용옥(2010).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유시간 분석. 2010년도 통계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6) 김외숙·한영선·이기영·이연숙·조희금·이승미·윤용옥(2012). 성인의 가족공유시간 유형과 유형별 특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65-186.

- 7) 박명숙·백경임(1997).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6), 173- 189.
- 8) 손문금(2004). 맞벌이주부의 시간부족(time famine) 인식. 여성인구, 67(2), 159-198.
- 9) 손문금(2010). 맞벌이 부부의 일상생활시간과 가족공유시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슈분석, 3호, 1-11.
- 10) 이기영·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 11)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 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6.
- 12)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1996). 한일 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13) 이기영·조희금·김외숙·이연숙·이승미·홍두승·조홍식·김유경·김주희(2006). 농가 가족원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205-222.
- 14) 이기영·김외숙(2009).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1개정판).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15) 이기영·이현아·김외숙·이연숙·조희금·이승미·김주희·한영선(2011).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및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103-128.
- 16) 이연숙·김외숙·이기영·조희금·이승미·김하녀·한영선(2012). 가족공유 여가시간 및 결정요인: 부부,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99-227.
- 17) 이승미(1996).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63-75.
- 18) 이승미·이기영(1988). 부모와 자녀의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23-136.
- 19) 이현아·이기영·김외숙(1999). 부부의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및 여가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137-155.
- 20) 안동선(1982). 한국도시 주부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유소이·최윤지(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 22) 윤소영·김현(2007). 여가시간의 동시적 활동 분석을 통한 성차 연구. 한국가족경영학회지, 11(2), 85-93.
- 23) 조희금·이승미·김외숙·이기영·이연숙·한영선(2011).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28.
- 24) 장근영·김기현(2009). 한국 청소년의 생활시간 국제비교와 라이프스타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39-155.
- 25) 진미정·이윤주(2010).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영유아기 아동의 생활시간 양태. 대한가정학회지, 48(6), 43-56.
- 26) 차승은(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취업한 기혼 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03-116.
- 27) 차승은(2010). 남녀의 시간압박인식 차이와 관련요인 탐색. 한국인구학회지, 33(1), 27-49.
- 28) 차승은(2011). 취업남녀의 시간부족인식과 시간활용: 1999년과 2009년의 생활시간자료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151.
- 29) 차성란(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지하는 시간부족 및 피곤함에 대한 연구. 대

- 전대학교 자연과학회지, 16(1), 145-159.
- 30) 최혜지(2007). 기혼취업여성의 성역할태도가 시간부족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학회지, 19(4), 75-102.
- 31) 채화영 · 김주희 · 이기영(2011). 중 · 고령자의 생활시간 유형화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129-146.
- 32) 한경미 · 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기 자녀를 둔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33) 한영선 · 윤소영(2009).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2), 81-95.
- 34) 한지수 · 이연숙(2005).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 유형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2), 41-57.
- 35) Anttila, T., Oinas, T. & Nätti, J.(2009). Predictors of time famine among finnish employees-work, family or leisure?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6(1), 73-91.
- 36) Barnet-Verzat, C., Pailhe, A. & Solaz, A. (2007). Being together or entertaining together? The impact of children on couples' activity synchron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European Society for Population Economics, Paris.
- 37) Bianchi, S. J., Robinson, P., & Milkie, M. (2006).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38) Bittman, M.(1998). The land of the lost long weekend? Trends in free time among working age Australians, 1974-1992. *Society and Leisure*, 21, 353-378.
- 39) Bittman, M. & Wajcman, J.(2000). The rush hour: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1), 165-189.
- 40) Bryant, W. K. & Zick, C. C.(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1), 227-237.
- 41) Firestone, J. & Shelton, B. A.(1994). A comparison of women's and men's leisure time: Subtle effects of the double day. *Leisure Sciences*, 16, 46-60.
- 42) Gatenby, R.(2001). Married only at the weekend? A study of the time spent together by spouses.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1-27.
- 43) Gatenby, R.(2004). Married only at the weekend? A study of the amount of time spent together by spouses.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44) Hill, M. S.(199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 427-451.
- 45) Kingston, P. W. & Nock, S. L.(1987). Time together among dual 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52(3), 391-400.
- 46) Knowles, S. J.(2004). Marital satisfaction, shared leisure, and leisure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with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 Theses. Oklahoma State University.
- 47) Looman, W. & Mills, M.(2010). Time pressure and inequal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Proceedings for 32nd Time Use Conference of IATUR.
- 48) Michelson, W.(2011). What makes an activity most enjoyable? Alternative ways of measuring subjective aspects of time-us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3(1), 77-91.
- 49) Nock, S. L. & Kingston, P. W.(1989). The division of leisure and work, *Social Science*

- Quarterly, 70, 24-39.
- 50) Orthner, D. K.(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7(1), 91-102.
- 51) Pöökkönen, H.(2008). Alone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5(1), 43-64.
- 52) Roeters, A., & Treas, J. K.(2010). Parental work demands and parent-child, family, and couple leisure in Dutch families: What g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32(3), 269-291.
- 53) Shelton, B. A.(1992). Women, Men, and Time: Gender Difference in Paid work, Housework and Leisure. NY: Greenwood Press, 111-159.
- 54) Szollos, A.(2009). Toward a psychology of chronic time pressu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review. *Time and Society*, 18, 332-350.
- 55) Yeung, W. J., Sandberg, J. F., Davis-Kean, P. E. & Hofferth, S. L.(2001). Children's time with fathers in intac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36-154.
- 56) Zuzanek, J. & Smale, B. J. A.(1997). More work-less leisure? Changing allocation of time in Canada, 1981 to 1992. *Society and Leisure*, 29, 73-106.

- 투 고 일 : 2012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7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8월 15일